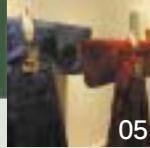




# 이화소식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2005년 6월 10일 제 70호



궁핍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10-12)

## Ewha Global Partnership Project

# “제3세계 여성인재 120명,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내년** 5월로 창립 120주년을 맞는 본교가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여성인재 120명을 선발, 본교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어학연수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Ewha Global Partnership Project)’를 추진한다.

신인령 총장은 “120년 전 미지의 땅 조선에서 여성교육을 시작한 창립자 스크랜튼 여사의 뜻을 기리고, 이화가 축적해온 교육 역량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개발도상국의 우수 여학생 120명에게 이화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또 “가난한 외국 학생을 위한 일방적 시혜가 아닌,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속에서 상생의 조화정신과 상호협력력을 이루어 낸다는 뜻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붙였다”면서 이와 함께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및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년전 미지의 땅 조선에서 여성교육을 시작한 이화의 창립자 메리 F. 스크랜튼 여사

첫 입학생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부터 매년 장학생 선발을 확대,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이 프로젝트의 소요 예산 중 등록금은 본교가 전액 부담하며 생활보조비 등의 경비는 기업, 국제기구, 기타 후원인들로부터 모금한 EGP(Ewha Global Partnership) 펀드로 조달할 계획이다.

본교는 프로젝트 성공의 최대 관건은 미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우수 학생의 선발이라고 판단, 이를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외국대학 및 교육기관, 외국 진출 국내기업, 국제교육진흥원, 이화의 해외동창조직, 해외 선교단체 등 가능한 네트워크는 모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유학생을 위해 ▲외국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어 강의 개설 확대 ▲한국어 교육과정 확대 운영 ▲국제 문화교류 공간 마련 ▲유학생 기숙 시설 확충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덕>

## 창립 119주년 기념식사

# 사랑의 '빛'을 갈수록 진솔한 마음으로



**오늘은** 이화가 5월의 생기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지 119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화의 역사는 사랑과 해방의 역사였으며 동시에 시련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여성교육의 황무지였던 조선에 한국여성교육의 첫 씨앗으로 뿌려진 이래 온갖 차별의 벽을 넘기 위해 감히 불가능에 도전했던 이화는 그에 상응하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 땅의 여성에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의 전망을 열어 놓았고, 인간의 자유 회복의 빛나는 길을 걸어 왔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화인을 대표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한국여성교육의 이 모든 결실은 세상과 나눔으로써 보답해야만 하는 실로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이 시대의 이화인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 사회에 환원하는 이화의 역량

이화는 지난 90년대 초에 이미 변화를 위한 원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21세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꾸준한 교육여건 쇄신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질의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수연구집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연구비 수주확충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단을 꾸려 이화의 강점 부문을 선택적으로 집중·육성함으로써 이들 분야는 이화가 이제 다만 한국의 대학이 아니라 세계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시적 지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분자생명과학 특성화사업단은 이미 국내의 어느 학교도 추종할 수 없는 최고의 대학원 분자생명과학부로 성장하였고, 여성학특성화사업단의 경우, 이화리더십개발원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이 유리천정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이화의 축적된 역량을 사회에 나누고 환원하는 한편, 오는 6월에는 전 세계 여성 리더 30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여성학대회'를 조직하여 이화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또 하나의 당면과제는 대학 구조조정의 요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미래의 교육환경과 현재의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추어 다양한 고민

과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 때로는 전공과 교과과정의 대폭 변경이나 입학정원의 상당한 감축 등이 감행되어야 하고, 때로는 새로운 시설과 기구의 신속한 개폐 및 직제의 변경과 통폐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그러나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화공동체 구성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아쉬움을 수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대승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일부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하였고 금년에는 더욱 면밀하게 추진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화호의 항해가 순조로울 수 없다는 경각심에 관한 공유를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이화구성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화다움'의 재해석

21세기의 냉혹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지금 우리 이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선배들이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화의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창립 이래 우리가 한결같이 지켜 온 이화의 정체성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기독교정신, 민족사적 자각, 그리고 억압받는 여성의 인간적인 삶의 구현입니다. 이러한 이화다움은 새로운 시대의 당위와 내용으로 더욱 풍부하게 재해석되고 채워져서 영원한 이화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화의 건학이념과 정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필요한 모든 변화를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는 이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화인 여러분!

이화의 긴 역사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실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화의 길에는 자랑이 더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화에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갈고자하는 진솔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화 가족 여러분들과 이화의 건학이념에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든든하고 따뜻한 이화의 친구와 이웃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인림

창립 119주년 기념식-5월31일 대강당에서

# ‘한국의 이화’를 넘어 ‘세계의 이화’로

**본교는** 5월31일(화·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119년 전 여성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 사랑과 헌신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이화의 개척자 정신을 되새기며 ‘세계속의 이화’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신인령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21세기적 교육환경이 매순간 긴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대학개혁을 신중하게 그러나 과단성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화구성원들에게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년, 20년, 10년 근속교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연구 우수 교원에게 수여하는 제 1회 ‘이화학술상’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첫 이화학술상 수상의 영광은 남원우 교수(나노과학), 윤영은 교수(영문), 최원목 교수(법학)가 차지했다.

남원우 교수는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산소화 효소’의 매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젊은 과학자로, 2000년 젊은 과학자상, 2003년 대한화학회 무기분과 우수연구상, 2004년 과학기술 총연합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과학기술부가 지정

한 창의사업단을 이끌고 있다.

윤영은 교수는 언어의 의미 및 화용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주목받는 영문학자. 저서 ‘언어의 의미현상’ (2002), ‘영어학의 이해’ (2003)가 대한민국학술원이 뽑은 ‘2004년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될 만큼 기초학문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최원목 교수는 외교관 출신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법 전문가로 꼽힌다. 국제 통상에 있어서의 제3의 이론 ‘시장기반설’을 제시한 저서 ‘국제통상법에 있어서의 비차별주의’가 국제통상법 분야 최고 권위의 옥스퍼



제1회 ‘이화학술상’을 수상한 남원우, 윤영은, 최원목 교수(왼쪽부터)

스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옥스퍼드대학 출판부 발간)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총동창회가 마련한 동창의 날 기념행사도 같은 날(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올해의 이화인’ 추대·화관무 축하 공연·합창제 등이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 윤순희 총동창회장은 황경숙 동문(서울 여성의 전화 회장, 국문 75년졸)외 49명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전달했다. <효>

## 나노과학부 연구센터

### ‘2005 우수연구센터’ 선정

본교 나노과학부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 연구센터(대표 최진호 교수)가 6월1일, 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2005년도 우수연구센터(SRC/ERC)’에 최종 선정되었다.

‘우수연구센터’ 사업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능력이 우수한 대학을 거점으로 미래 지향적인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국제수준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우수연구센터’ 사업의 수에 따라 그 대학의 위상이 결정될 만큼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2005년에는 총 81개 과제 중 과학연구센터(SRC) 5개, 공학연구센터(ERC) 4개 등 9개 연구센터가 선정됐으며, 이들 연구센터는 매년 10억씩 9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본교가 지원한 ‘지능형 나노바이오 연구센터’는 앞으로 나노바이오 소재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와 국내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 국내 최초의 대학 보유 특허·기술 공동 관리 조직

### 본교, 연대·서강대와 함께 ‘신촌밸리’ 구축



본교와 연대, 서강대가 각각 보유중인 특허·기술을 기업체에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ceing Office) ‘신촌밸리’를 구축하기로 하고, 그 선포식을 5월26일(오후 1시30분), 서강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사진).

대학이 개발한 특허·기술의 기업이전을 활성화하고, 산학협

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구축된 ‘신촌밸리’는 공동 기술이전 전담 조직으로, 앞으로 기술 공동 마케팅 및 사업화 등 기술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본교가 보유한 ‘폐닐한 유도제 화합물’을 포함하는 암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항암보조용 조성물’ 등 120 여건의 특허 기술을 비롯, 연세대 350 여건, 서강대 150 여건 등 총 620 여건의 특허·기술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신촌밸리’는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대학간 협력 체제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대학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활발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촌 리그’라 불리는 학부 및 대학원간 학점교류를 하고 있는 세 대학은 ‘신촌밸리’ 선포를 계기로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민>

이화·삼성 캠퍼스센터(ESCC) 기공식

# 이화캠퍼스의 역사를 다시 쓴다

**이화** · 삼성 캠퍼스센터(ESCC)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 행사가 5월16일(월·오전 11시) 대운동장 신축부지에서 이화학당 정익숙 명예 이사장과 윤후정 이사장, 신인령 총장, 설계자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 김선욱 법제처장, 이상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등 내외贵宾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공식 참석 인사들이 ESCC의 첫 삽을 뜨고 있다.  
오른쪽은 조감도.

신인령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고의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21세기 이화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라고 강조하면서 ESCC 프로젝트의 출발 배경과 진행 과정, 이화 역사에 있어서의 의미 등을 소상히 밝혔다.

신 총장은 “학교가 이 프로젝트를 과감히 추진해 온 것은 바로 이화의 학생들에게 ‘머무르고 싶은 캠퍼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완공될 때까지의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자고 당부했다.

설계자인 도미니크 페로씨는 “ESCC는 하나의 건축물을 뛰어넘어 기존의 학교 건물과 시설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작은 도시의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이화의 학생들은 이 건축물을 통해 잊지 못할 캠퍼스의 추억들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이화캠퍼스센터(ECC)’로 불리어 오던 이 건축물의 명칭은 상당부분의 건축기금을 기부하는 기부자와 건물 명칭을 공유하는 관례에 따라 ‘이화·삼성 캠퍼스센터(ESCC)’로 잠정 결정됐다. 2007년 말



준공될 ESCC는 연면적 2만평, 지하 2개층과 지상 4개층 규모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DPA(Dominique Perrault Architects)의 기본 설계안은 국내 ‘범건축’의 실시설계를 거쳐 삼성건설에 의해 시공될 계획이다.



도미니크 페로

공동 인터뷰/설계자 도미니크 페로 · 박경희 건설본부장

## “무한 가능성의 미래형 열린 공간”



박경희  
건설본부장

### Q. ESCC 설계의 주안점은?

ESCC는 단순한 하나의 건물이 아닌, 기존의 캠퍼스 시설과 환경을 하나로 이어주는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와의 조화를 이루고 건물간의 연계성을 살리는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ESCC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조경’(landscape)이자 다양한 문화 생활이 가능한 ‘문화 도시’가 될 것이다.

### Q. 캠퍼스 밸리(Campus Valley)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ESCC 자체가 총 6개층 규모의 계곡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심속의 대학공원’ ‘건물이라기 보다는 풍경’처럼 존재하는 건축물을 지향하고자 한다. ‘캠퍼스 밸리’는 이화의 수목과 유서깊은 건물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캠퍼스의 중심으로 기능할 것이다.

### Q. 이화인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가?

ESCC를 통해 학교가 단지 강의와 수업을 받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과 문화행사, 영화감상, 열린 만남 등이 이루어지는 무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살아 움직이기를 기대한다. 이화인들은 이 공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 Q. 내부 설계도 독특하지만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진다는데...

설비시스템 자체가 하이테크(Hi-Tech)가 아닌 로우테크(Low-Tech), 즉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공랭식과 함께 지하수의 자연적인 열을 이용하는 ‘쿨링 라디에이터’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파이프가 건물 안

에 그대로 노출되며 그 주변에서는 식물도 키울 수 있게 된다.

### Q.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나?

대형 강의 및 문화공연이 가능한 대규모 계단식 강의실 4개와 24시간 열람실, 미디어 랩, 세미나실, 원스탑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정시설, 갤러리, 북카페, 공연예술극장, 휘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 Q. 이화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ESCC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움과 가능성의 공간’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화인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공간을 통해 앞으로 이화인들의 가능성이 무한히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

# 창립 70주년 맞아 새 모습 갖춘 박물관

대학박물관의 대표 주자로 우뚝

**본교** 박물관(관장 윤난지 교수)이 1년 6개월간의 증축 공사를 마치고 5월31일(화·오전 11시) 다시 문을 열었다. 박물관 창립 70주년 기념을 겸한 이날의 증축 개관식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종규 한국 박물관협회회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 미국과 이란 대사관의 문화담당자 등 400여 명이 본교 박물관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에 축하를 보냈다.

윤난지 관장은 “박물관은 교육기관 속의 또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며, 본교 박물관은 전통과 현대, 지방문화와 중앙을 연계하는 참신한 기획으로 대학박물관의 새로운 위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기념식 2부에서



는 제로 파워(Zero Power)의 ‘천년의 북소리’, 채미현·정현기의 ‘레이저 아트’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박물관은 이번 증축으로 총 1730평 규모의 전시공간(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기증전시관, 담인복식미술관)

과 전문도서관을 갖추게 됐다. 7월30일(토)까지 상설전 ‘한국 도자의 새로운 시선’, 특별전 ‘시간을 넘어선 올림: 전통과 현대’, 기증전 ‘지역사회의 뜻과 정성’, 담인복식미술관 상설전 ‘선인들의 삶이 담긴 우리 옷’ 등 풍성한 전시회(사진)도 함께 펼쳐진다. <민>



림: 전통과 현대’, 기증전 ‘지역사회의 뜻과 정성’, 담인복식미술관 상설전 ‘선인들의 삶이 담긴 우리 옷’ 등 풍성한 전시회(사진)도 함께 펼쳐진다. <민>

국제전 ‘telltale’와 이맘(E-MOMM) 기획전 등

## 이화아트센터 활발한 기획전으로 시선집중

조형예술대학 2층에 자리잡은 대안전시공간 ‘이화아트센터’가 참신한 기획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120평 규모의 ‘이화아트센터’는 이동 벽면을 통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전시공간으로 국제전, 초대전, 기획전 및 졸업 작품전 등 각종 전시회가 줄을 잇고 있다.

개관 첫 전시로 열렸던 ‘telltale’展(4월13~30일)은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레드라이언 상을 받은 아비쉬 케브라자데와 젊은 영국 예술가 그룹인 yBa(young British artist) 작가인 제인 심슨 등 국제 미술계의 실력있는 중견작가 10명을 집중 조명했다. 이들 중 6명은 이번 전시를 위해 본교를 직접 방문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5월 9~14일에는 도예 연구소(소장 강석영 교수)의 기획전 ‘節食器展’(사진)이 펼쳐졌다. 조형대 김영기 학장과 강석영 교수를 비롯, 한국의 대표급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생활 도기 200여 종이 이맘(E-MOMM)이라는 브랜드로 첫 선을 보인 것. 이맘(E-MOMM)은 이화를 뜻하는 ‘이’와 마음의 줄임말 ‘맘’을 의미한다.

한국 전통 24절기의 절식을 소재로 도자공예와 절식문화를 통합한 신공예 디자인을 제안한 이 전시회는 정구호 제일모직 상무, 최가 철물 최홍규 대표, 공간 아티스트 마영범 교수 등이 직접 디자인 작업에 참여,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민>



### 당신의 DNA를 휴대폰 고리에 담어드립니다

본교가 특성화 영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생명공학, 나노과학, 여성학, 디자인의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6월1~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 마련된 본교 전시관에서는 자신의 DNA 휴대폰 고리를 만들어주는 등 본교만의 특색을 살린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인 본교 전시관.

‘과학 이화’ 꽃 피웠다

#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세계적 연구 성과 이뤄

분자생명과학부의 강상원·최민희팀, 나노과학부의 우정원·황지수팀

본교의 스승과 제자들이 손을 맞잡고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잇달아 이뤄내 화제다. 분자생명과학부의 강상원·최민희팀, 나노과학부의 우정원·황지수팀이 바로 그 주인공.

강상원 교수 연구팀은 5월9일자 ‘네이처’지에 ‘퍼록시리독신’이란 물질이 활성 산소의 하나

인 과산화수소의 세포내 농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왕성하게 자라서 생기는 암이나 동맥경화 등의 질병을 억제하는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논문의 주 연구자인 최민희 씨는 아직 석사학위도 따지 않은 대학원생. 유명 과학자도 평생에 한 편 내기도 어렵다는 ‘네이처’에 주연구자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단숨에 차세대 여성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최씨를 지도해온 강 교수는 “유달리 학문적 탐구

심이 많은 제자”라면서 “밤늦은 실험을 위해 학교 앞으로 이사 올 정도로 열심”이라고 칭찬했다. 대학 4학년 때 강 교수의 연구팀에 들어온 최씨는 “매일 랩 미팅을 꼼꼼히 챙기실 만큼 세심한 교수



강상원 교수(왼쪽)와 최민희 씨

님 덕분에 연구의 내공을 쌓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차세대 광(光)컴퓨터의 핵심기술로 쓰일 ‘광다이오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 ‘네이처 머티리얼스’(4월 24일자)지에 논문을 발표한 우정원 교수와 황지

수 박사는 10년지기 사제기간이다. 3개월여에 걸친 연구 결과 빛의 전달을 임의로 제어해 전기를 이용한 반도체처럼 광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다이오드(광자결정 이중 접합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황 박사는 “5년 동안 광학분야 하나에만 집중해 온 결과”라며

“2~3일씩 밤샘하는 일도 힘들어도 막상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면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그를 두고 스승인 우 교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추진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석사 졸업 후 직장생활 잘하던 황 박사를

다시 연구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이도 바로 우 교수이다.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스승과 제자, 이들의 레거는 누구보다 끈끈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는지 모른다. <효>



우정원 교수(왼쪽)와 황지수 박사

## 뉴스 클리핑

한겨레신문

## “이화여대 과학 분야 약진의 비결”

“국내 석사과정 대학원생, <네이처>에 ‘퍼록시리독신’에 의한 혈소판 유도성장 인자 신호전달 및 혈관 리모델링의 조절’의 제1저자로 등재.”

(2005년 5월19일)

“국내 박사과정 대학원생,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광자결정 액정 이중접합계’에 기초한 전기-가변 광다이오드’의 제1저자로 등재.”(2005년 4월24일)

“국내 석사과정 대학원생, <사이언스>에 ‘생체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산소화 효소의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의 제1저자로 등재.”(2003년 2월14일)

잇단 개가를 올린 대학원생들은 모두 이화여대 출신이다. 전통적으로 문과에 강한 이대에서 과학적 성과들이 잇따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학교 쪽은 분자생명과학부와 나노과학부의 ‘개방과 집중’이라는 독특한 운영방식에서 이유를 찾는다. 이공주 이대 연구처장은 19일 “학과 사이의 벽을 허물고 연구인력을 한 곳에 모아 한 분야에 집중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분자생명과학부는 1998년 출범했다. 당시 장상 총장은 과학 쪽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대학 위상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을 맡을 인물의 물색에 나섰다. 이대의 ‘삼고초려’를 받은 사람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세포 신호전달연구실 책임연구원이던 이서구(62) 현 이대 석좌교수였다.

이 교수가 학교 쪽에 요구한 것은 세포신호전달이라는 한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다. 이 교수는 세포신호전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의 연구실을 거쳐간 국내 과학자들만 60여명에 이를 정도다. 전권을 위임받은 이 교수는 엄밀한 심사를 통해 생물과, 화학과, 약대에서 각각 3명씩

을 선발해 학부를 꾸렸다. 이후 의대, 약대, 공대, 수의대, 농대 등 다양한 학부 배경을 가진 13명의 신입 교수를 채용했다. (중략)

이대 분자생명과학부의 또다른 특성은 한 건물에 모든 연구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완공된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은 매층마다 200여평이 다 트여 있다. 실험실간 벽도 없다. 가운데 핵심실험실을 모아놓고 20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교수들은 수시로 모여 세미나를 한다. 강상원 교수는 “1㎡에 안되는 실험용 쥐의 혈관에 실험기구를 집어넣을 기술을 지원하는 등 인근 교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네이처> 발표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런 집중 연구의 성과는 논문 수로도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교수 19명이 제출한 논문이 43편, 임팩트 팩터(논문 인용지수)는 2.3이던 것이 2003년 각각 46편·5.5, 2004년 69편·5.6으로 늘어났다. 올해 5월 현재 37편의 논문이 제출되고 임팩트 팩터가 7.2에 이른다. 이 교수는 “연구인력과 지원 등에서 열악하지만 포항공대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는 분자생명과학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КИСТ) 출신의 손연수 교수와 서울대 화학과의 최진호 교수를 석좌교수로 초빙해 나노과학부를 만들었다.

여자대학에 이공계 대학원 과정을 둔 사례는 세계에서 찾기 힘들다. 이대 분자생명과학부와 나노과학부가 장상 전 총장의 말대로 “여자도 과학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지 주목된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한겨레 신문 2005년 5월 20일자>

# 감동의 ‘선생님 표 장학금’ 릴레이

최소자 교수 · 이배용 교수 · 조정현 교수 · 모혜정 교수 및 물리학과 교수진

**올 봄** 나노과학부와 음대 교수들이 제자 사랑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조성한 이래 각 과, 전공별로 이같은 ‘선생님 표 장학금’이 잇따라 마련되는 등 감동의 장학금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최소자 교수



이배용 교수



조정현 교수

은 과의 이배용 교수도 2002년에 5000만 원을 약정, 매달 일정액의 장학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한국 여성 사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본교 사학과 교수들의 마음이 담긴 이 장학금은 본교 사학도들에게 내년 부터 지급된다.

최소자 교수(사학)는 4월26일, 사학과 50주년을 기념해 5000만원을 여성 사학도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최초의 본교 출신 사학 전공 교수라는 타이틀에 줄곧 책임감을 느껴왔다는 최교수는 “정년퇴임 때 기부할 생각이었는데 사학전공 50주년을 기념하고자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같

5월2~7일 이화아트센터에서 퇴임전시회를 가진 조정현 교수(도예예술)도 전시회 첫날 2000만원의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도예연구가로서 한국의 현대 도예 문화를 이끌어온 조 교수는 “훌륭한 도예전공자들이 많이 배출돼 본교가 현대 도예의 맥을 계속 주도해 나가기 바란다”고 격려하고 여력이 되면 계속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학금은 향후 도예전공 3,4학년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월림, 한승우, 윤석현, 강 원, 박일홍, 양인상, 김태희, 모혜정, 이공주복, 안창림교수

## 지천 장학금 기탁 교수 명단

- ◆ 물리학과전공 모혜정 교수, 양종만 교수, 강 원 교수, 안창림 교수, 이공주복 교수, 박일홍 교수, 김태희 교수, 조월림 교수, 김찬주 교수, 한승우 교수
- ◆ 나노과학부 우정원 교수, 양인상 교수, 윤석현 교수

5월13일에는 물리학과전공 교수들이 여성 물리학과들을 위한 ‘지천(智泉) 장학금’ 5000만원을 조성했다. 물리학과 명예교수인 지천(智泉) 모혜정 교수가 물리학과 창립 50주년 및 ‘세계 물리학의 해’를 기념해 기부한 장학금 2000만원에 12명의 물리학과 현직 교수 전원이 3000만원을 보태어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만들어진 것. ‘지천 장학금’은 본교 여성 물리학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앞으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지천(智泉)은 본교 교수였던 고 백동기 교수가 모혜정 교수에게 지어준 아호이다.



## ‘이화 유학생회’ 초대 회장 쯔노다 키미씨

# “국경을 초월한 이화 사랑으로 뭉쳤습니다”

“공용어요? 물론 한국어죠.”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 10년째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본교생 쯔노다 키미(22세 · 정치외교 2년)씨. 국적도 인종도 다양한 ‘이화 유학생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 중인 그를 만났다.



쯔노다 키미씨

“처음 이화에 온 유학생들은 수강 신청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원하는 수업을 듣기가 힘들거든요. 유학생들끼리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로 친목도 다져보자는 차원에서 유학생회를 만든 거죠.”

한 달 만에 벌써 일본, 중국, 터키, 이란 등에서 건너온 20명의 유학생과 30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멤버로 참가하고 있다. 부회장은 있지만 아직 총무는 없다.

해외근무를 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온 것이 중학교 때. 일년 후 가족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키미씨는 혼자 남기로 결정, 가족사 생활을 하며 한국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선화예중 재학시절 성악을 전공한 음악도였고,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진학했다.

그의 관심사는 국제무대. 어릴 적 NGO에서 활동하신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UN가구나 NGO에서 난민을 돕는 것이 꿈인데 유학생회 활동 역시 타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돕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 한국을 많이 알리면 그만큼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저도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화 유학생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그리고 우리 학교를 찾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동료 이대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이것저것 물어보기가 미안할 정도죠.” 공부 경쟁에서 국적의 문제는 논외라는 것.

앞으로 언어 교류 프로그램 실시, 유학생 걷기 대회, 타대 유학생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할일이 태산이라는 그는 무엇보다 유학생들을 위한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의 맘이 담긴 ‘이화 유학생회’, 국경을 초월한 이화사랑의 앞날이 기대된다. <민>

## 55년생 동갑내기

## 사학과 · 물리학과 나란히 50회 생일잔치

1955년에 설립된 사학과와 물리학과가 나란히 50돌을 맞았다. 사학과는 5월20일(금·오후 2시) 경영관 홀에서 50주년 기념식(위 사진)을 갖고 한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역사교육기관'으로 앞장서 걸어온 50년 세월을 반추했다.

이배용 교수(사학)는 "사학과는 여성사학자의 존재조차 없었던 시절, 영문과 출신 교수님에 의해 시작됐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남성중심의 사학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사를 복원하고, 고·중세 중심에서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 연구로 역사학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자축했다.

78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한 사학과는 지금까지 학사 2450명, 석사 251명, 박사 50명을 배출했으며 1963년 '이화사학연구소'를 창설, 학술지 '이화사학연구'와 '이대사원'을 발행하고 있다. 50주년 기념으로 동창·교수의 인터뷰와 졸업생 사진 3000장을 담은 CD-ROM을 배포하고, 이기백, 함홍근 등 퇴임교수 9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물리학과는 아인슈타인 서거 50주년, 상대



성이론 발표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물리의 해'에 창립 50주년을 맞게 돼 더욱 들뜬 분위기다.

창립 50주년과 '세계 물리의 해'를 기념하여 4월21~23일 '한국물리학회 학술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치러낸 물리학과는 한 달 뒤인 5월27일(금·오후 3시30분) 종합과학관 B153호에서 창립 50주년을 자축하는 자리(아래 사진)를 마련했다.

모혜정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6.25 전쟁 직후, 그것도 여자대학에서 물리학과가 창설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그간 학사 1498명, 석사 179명, 박사 17명 등 우수 여성과학자 배출을 선도해 온 물리학과가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1세기를 맞는 2055년에는 이화에서 제2의 아인슈타인을 탄생시키자"고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창립 주임교수, 정병두, 모혜정, 신승애, 김성구 명예교수가 공로패를 수상했으며 물리학과 50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도 선보였다.

한편, 사학과와 물리학과 두 과의 교수진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각각 장학금 1억원과 5000만원을 기탁, 50주년의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권한기사 7면 <표>)



## 미리 보는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WW05)

## 세계의 여성학자들, 지구를 논하다

6월19~24일, 본교를 중심으로 연세대·서강대에서

전세계 100여개국 3000여명의 여성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의 크고작은 고민거리들을 여성적 시각으로 조명, 대안을 모색하는 한마당 큰 잔치가 펼쳐진다. 6월19~24일, 본교를 주무대로 연세대, 서강대에서 함께 펼쳐지는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Embracing the Earth: East-West, South-North'가 바로 그것.

세계여성학대회(Women's Worlds :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는 전세계의 대학과 전문 연구소, 국제기구, NGO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학자, 운동가, 정책 관련자들의 국제학술회의로 흔히 '세계여성총회'라고도 불린다. 1981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열린 이후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 호주, 노르웨이, 우간다 등지에

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정밀화 조직위원장(본교 대학원장)은 "아시아 여성들의 이슈를 새롭게 담론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 및 한국 여성들의 위상과 사회 문화적 역할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급 여성학자 200여명이 총동원되어 2년여의 준비 끝에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거꾸로 드 몽젤라 범아프리카연합회의 의장을 비롯, 샌드라 허딩, 엘리슨 재거, 낸시 콜브레, 살로 반퀴, 신시아 안로 등 국내외 여성학자 3000여명이 참여한다.

"경계를 넘어서 : 동/서, 남/북"이 이번 대회의

주제. 이를 "포용과 인내, 공존"이라고 풀이하는 김은실 사무총장(본교 여성학과 교수)은 "지역, 세대, 운동과 지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여성학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9.11 테러 이후의 국제 분쟁과 전쟁, 과학과 지식 생산 유통구조의 남성 중심주의, 페미니스트 경제학, 여성환경운동, 여성의 리더십과 정책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준비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1 전시의 어린이, 여성노동영화제, 가정 폭력 여성들을 위한 추모제, 제3회 여성미술제 등 문화행사도 무척하게 마련된다.

대회에 대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www.ww05.org](http://www.ww05.org) 참조. (박)

## 자연사박물관 특별전 '여섯번째 대멸종'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자취 더듬어



외부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화관의 명소' 자연사박물관이 2006년 4월28일까지 특별기획전

'여섯번째 대멸종'을 열고 있다. 과거 5번의 대멸종과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영상체험, 퀴즈 이벤트 등 멸종 동물들의 생활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겹쳐진다. 5월23일 개막일에는 원용진 교수(생물과학)의 개막기념 특강 '멸종 위기종- 정말로

심각한가?'를 열어 현대인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 북한 및 통일 연구 선도한다 통일학연구원 개원

지구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통일 및 남북문제를 연구할 통일학연구원(원장 구대영 교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6월10일(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오후 1시30분) 개원행사 및 학술대회를 열고 정식 개원하는 것. 초대 원장인 구대영 교수(정외)는 "앞으로 북한-통일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일학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통일학연구원은 개원 전부터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 4월8일에는 본교 북한학과 정세현 석좌교수의 강연회 '이화가 꼭 알아야 할 통일이야기-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5월13일에는 북한학 전문가인 감성운 교수(동국대)가 발제한 글로벌 이슈 '북한-통일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개최,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마련 개원 행사에서는 신인영 총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축하 및, 정세현 석좌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통일학 담론의 효율적 소통방안 모색', '북한 시장의 작동원리와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마련된다.

### 커리어 맵 그려주는 경력 조언자 키워요



경력개발센터(원장 김해련 교수)가 국내 최초로 '커리어 코칭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5월16일~7월28일까지 총 65시간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커리어 코치란 문憑선수의 코치처럼 취업, 승진, 이·전직 등 개인의 진로 및 경력을 조언해 주는 전문가. 취업을 연결해주는 헤드헌터나 직업정보를 알려주는 직업상담사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만 29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의 세계', '커리어 심리검사', '커리어 상담', '코칭 대상자에 대한 이해', '현장실습' 등 총 5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본교 경력개발센터와 협정한 지역사회 기관 및 산업체에서 '청소년 커리어 코치' 또는 '경력자 커리어 코치'로 활동할 수 있다. 여성부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프로그램 개발 비용은 여성부가, 취업 연계는 서울시가 지원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은 본교가 담당하는 관학협력 프로그램이다.



###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디·자·인

디자인여성학회(DWCA, 회장 이영희 디자인학부 교수)가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와 더불어 맞춰 '디자인·여성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2005 DWCA 학술대회'(6월18일·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와 '여성스타디자이너 초대전 및 회원전'(6월13~18일·이화아트센터)을 개최한다.

여성스타디자이너 초대전에서는 김정림(예세디자인 대표), 박미경(스페이스 디자인 대표), 박현주(지선 대표) 등 여성의 감수성과 통찰력을 잘 드러내는 6명의 작품을 전시하고, 회원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배려한 신선한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 본교, '이화'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리



학교 명칭 '이화' 및 'Ewha'의 상표권은 본교 소유라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본교가 학교 명칭 '이화', 'Ewha' 마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설어학원인 ELC코리아(주)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데 이어 최근 ELC코리아

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냈던 상고를 5월4일 자신 취하한 것. 본교는 지난 2003년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ELC코리아(주)가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이를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지난해 5월, 일반 수요자들이 ELC코리아(주)가 경영하는 외국어학원을 마치 '이화여자대학교'나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ELC코리아(주)의 서비스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심결을 내린 바 있다. 본교와 사설어학원 사이에 학교 고유 명칭을 두고 벌어졌던 상표권 소송이 1심, 항소심, 대법원 상고 자신 취하까지 모두 본교 승소로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명문 사학의 이름을 사회적 자산으로 보호하는 추세가 하나의 판례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 '이화여대-중앙일보 파이낸셜 플래닝 센터' 개원



맞춤형 재테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화여대-중앙일보 파이낸셜 플래닝 센터' (Financial Planning Center)가 5월18일, 생활환경대 4층에 문을 열었다(사진). 산·학·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센터는 중앙일보의 경제면 재산리모델링 시리즈를 콘텐츠로 활용하며, 본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노후대비 전공)들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삼성생명·하나은행이 상담인력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장 여윤경 교수(소비자인간발달)는 "산·학·연이 하나가 되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내 첫 협력 사업이며 전문가 집단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결합한 독보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상담은 'WeStart 운동' 후원금 납부자에 한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면담 후 개인별 맞춤 전문가 상담으로 진행된다. (문의: 3277-4497)

## 동정



### 임숙자 교수(의류직물)

4월16일, 한국의류학회가 수여하는 '제7회 이흥수 저술상'을 수상했다. 지난 98년 고 이흥수 본교 교수의 학문적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의류학 발전에 기여한 저술자에게 주어진다. 5월19

일에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우수 논문상' 상도 수상했다.



### 홍상자 교수(체육)

3월31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올해부터 4년간이다.



### 박애정 교수(섬유예술)

4월6~16일, 서울 진화랑에서 14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우리 생활 전통 속에 자리잡고 있는 12지(支)를 선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였다.

### 김명희 교수(컴퓨터)

5월28일(아주대 다산관 대강당), 회장으로 있는 한국컴퓨터그래픽스 학회에서 춘계학술대회 2005를 개최했다. 6월17~21일에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University Hospital Benjamin Franklin에서 개최되는 한국 첨단영상처리 워크숍(Korea-Germany Joint Workshop on Advance Medical Image Processing)에 참가할 예정이다.



### 조기숙 교수(무용)

4월8~9일 호암아트홀에서 '조기숙 New Ballet-몸놀이(The Body Play)'를 공연했다. 이 공연은 영국에서 9년간 유학생활과 공연활동을 마치고 영국 서레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 교수가 지난해 귀국한 뒤 가진 첫 번째 개인 공연이다.



### 윤난지 교수(미술사)

'현대미술의 풍경'(한길아트) 개정정보판을 발간했다. 미술 이론서로는 이례적인 이번 개정정보판은 데미언 허스트, 마리오 모리 등 초판에 없던 작가를 새로 추가했다.



### 김용운 교수(관현악), 이규도 교수(성악)

5월19일 음악대학 김영의 홀에서 '교향악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공연은 음악인 양성고 한국 음악계의 발전에 공헌한 두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영기 교수(시각정보디자인)

4월26일~5월15일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40년 디자인 작업전'을 열었다. '첨단기술과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디자인 분야에 평생 바친 김 교수의 열정과 철학, 작품 등을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 이연향·김혜림 교수(통역번역)

4월7~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META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움에 논문 발표자로 참석했다. META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통·번역학 연구 학술지이다



## 부음

### 이청기 교수(의과대학 재활의학과)



4월10일,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이 교수는 타의 귀감이 되는 연구활동과 헌신적인 의료활동으로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다. 4월12일 이대 목동병원 김옥길 홀에서 열린 영결예배에는 많은 의대 교수와 학생, 지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 2005년 전기 직원 인사발령 (2005년 4월 1일자)

| 소 속        | 성 명 | 직 위      | 발령사항                        |
|------------|-----|----------|-----------------------------|
| 경영대학/경영대학원 | 유일선 | 사무직원(과장) | 명: 입학과                      |
| 교무과        | 이용서 | 사무직원(과장) | 명: 경력개발센터                   |
| 학적과        | 조금희 | 사무직원(과장) | 명: 회계과                      |
| 입학과        | 한혜선 | 사무직원(과장) | 명: 학적과                      |
| 회계과        | 김난숙 | 사무직원(과장) | 명: 연구과/산학협력과                |
| 연구과/산학협력과  | 이은규 | 사무직원(과장) | 명: 교무과                      |
| 경력개발센터     | 최양숙 | 사무직원(과장) | 명: 교육대학원                    |
| 대외협력과      | 이양준 | 사무직원(주임) | 면: 주임(2005. 3. 31)<br>보: 과장 |
| 대외협력과      | 이하나 | 사무직원     | 보: 주임<br>명: 교목실             |
| 조형예술대학     | 주혜선 | 사무직원     | 명: 구매과                      |
| 교무과        | 추정아 | 사무직원     | 명: 경영대학/경영대학원               |
| 학적과        | 이재연 | 사무직원     | 명: 대외협력과                    |
| 학생복지센터     | 김영상 | 사무직원     | 명: 입학과                      |
| 입학과        | 정오훈 | 사무직원     | 명: 학적과                      |
| 회계과        | 박미숙 | 사무직원     | 명: 학생복지센터                   |
| 회계과        | 이필선 | 사무직원     | 명: 시설과                      |
| 시설과        | 신연숙 | 사무직원     | 명: 회계과                      |
| 구매과        | 이재숙 | 사무직원     | 명: 조형예술대학                   |
| 연구과/산학협력과  | 양진  | 사무직원     | 명: 산학협력과/회계과                |
| 정보시스템개발과   | 김나영 | 기술원      | 명: 정보시스템관리과                 |
| 신임         | 류제영 | 기술원      | 명: 의과대학                     |
| 신임         | 김영희 | 사무직원     | 명: 교무과                      |
| 신임         | 김기현 | 사무직원     | 명: 기획과                      |
| 신임         | 민경주 | 사무직원     | 명: 기획과                      |
| 신임         | 이윤구 | 사무직원     | 명: 학생복지센터                   |
| 신임         | 김윤경 | 사무직원     | 명: 관재과                      |
| 신임         | 김성희 | 사무직원     | 명: 산학협력과/회계과                |
| 신임         | 남진석 | 기능직(건축)  | 명: 시설과                      |
| 신임         | 박정옥 | 사무직원     | 명: 구매과                      |
| 신임         | 고유선 | 사서       | 명: 중앙도서관                    |
| 신임         | 석진형 | 사서       | 명: 중앙도서관                    |
| 신임         | 박현숙 | 사무직원     | 명: 언어교육원                    |

## 〈 신임직원 〉



류제영



김영희



김기현



민경주



이윤구



김윤경



김성희



남진석



박정옥



고유선



석진형



박현숙

## 창립 119주년 기념 장기근속 표창 교직원명단

|            |     |                                                                                                                                                                                                                                                                                                                                                                                                                                                                                                                                                                                                                                             |
|------------|-----|---------------------------------------------------------------------------------------------------------------------------------------------------------------------------------------------------------------------------------------------------------------------------------------------------------------------------------------------------------------------------------------------------------------------------------------------------------------------------------------------------------------------------------------------------------------------------------------------------------------------------------------------|
| 30<br>수년이상 | 교수  | 김현자(국문), 조형(사회학), 김옥경 · 최금자(의학), 변영순(간호과학)                                                                                                                                                                                                                                                                                                                                                                                                                                                                                                                                                                                                  |
|            | 직원  | 손중수(사회복지), 정보과학 · 정책과학대학원, 정경자(사회과학대학), 김영희(사범대학), 이상천 · 권상호(총무과) · 최영옥 · 이근영 · 이용희 · 안정숙 · 김동훈 · 황치옥(부속 이화 · 금란고등학교), 방영석 · 김인수(부속 이화 · 금란중학교)                                                                                                                                                                                                                                                                                                                                                                                                                                                                                             |
| 20<br>수년이상 | 교수  | 조동섭(컴퓨터), 정재서(중문), 이배웅(사학), 정도성(경제), 김봉화(문화정보), 장필화(여성), 김신자(성악), 백의현(작곡), 조경원(교육), 김영수(교육공학), 김영길(영어교육), 김성원(과학교육), 이영해(수학교육), 김명(보건교육), 박영오 · 전윤식(의학), 김수지(간호과학), 최혜선(의류직물)                                                                                                                                                                                                                                                                                                                                                                                                                                                               |
|            | 직원  | 이미경(교육대학원), 이혜숙(조형예술대학), 장영숙(학적과), 이혜선(사회봉사센터), 신효숙(입학과), 최장보 · 임경종 · 임삼규(총무과), 김영자(후생복지과), 신연숙(회계과), 권성한 · 권기하(시설과), 박혜진(연구과/산학협력과), 조성숙 · 이명숙(중앙도서관), 왕성택(멀티미디어교육원), 엄용재 · 김은경 · 황승렬 · 권인숙 · 동현주(부속 이화 · 금란고등학교), 박광우 · 박미경(부속 이화 · 금란중학교)                                                                                                                                                                                                                                                                                                                                                                                                |
|            | 연구원 | 이보연(사범대학)                                                                                                                                                                                                                                                                                                                                                                                                                                                                                                                                                                                                                                   |
| 10<br>수년이상 | 교수  | 김길현 · 이경림 · 이상혁(분자생명과학), 장동훈 · 류철균(디지털미디어학), 남원우(나노과학), 최병주 · 김명 · 융환승(컴퓨터), 지윤규 · 신형순(정보통신), 신영수(건축), 조경숙 · 김동수(환경), 전해영(국문), 박찬길 · 윤영은(영문), 김도훈 · 권은미 · 한민주(불문), 장미영(독문), 김명미 · 함동주(사학), 정용석 · 손운산(기독교), 김수진(정치외교), 박통희(행정), 정연경(문화정보), 함인희 · 진승권(사회), 한인영(사회복지), 양윤(심리), 이재경 · 김훈순(언론홍보영상), 이향숙(수학), 신동완(통계), 최원자(생명과학), 이종목(한국학), 조덕현 · 우순옥(회화 · 판화), 박숙영(조소), 조영식(산업디자인), 손정례 · 장연순 · 차임선 · 박애정(섬유예술), 김명숙 · 신상미(무용), 홍용희(유아교육), 김정효(초중교육), 정재삼(교육공학), 김영태 · 박은혜(특수교육), 최경희(과학교육), 노선숙(수학교육), 김진호 · 이용주 · 박성연(경영), 이지희 · 김형래 · 김원기 · 장중현 · 하은희 · 이경은 · 한후재 · 정구용(의학), 신경림(간호), 김화정(약학), 도현심(소비자인간발달), Susan Oak · Mary S. French(교양영어) |
|            | 직원  | 한정미(의과대학), 김윤아(의학과), 정희정(기획과), 박일영(총무과), 이미영(인사과), 이은선(회계과), 진윤경(정보시스템관리과), 최숙희(정보시스템개발과), 김영인(대외협력과), 강유정(중앙도서관), 김재신(부속 이화 · 금란중학교), 이복희 · 김성희(부속 초등학교)                                                                                                                                                                                                                                                                                                                                                                                                                                                                                   |
|            | 조교  | 김성희(생명과학)                                                                                                                                                                                                                                                                                                                                                                                                                                                                                                                                                                                                                                   |



##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지난 3월, 8종의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가 처음 선보인 데에 이어 영어판 6종, 한글판 2종이 추가로 출간되었다. 2005년 7월 까지 1차분인 한글판 10종, 영어판 10종의 출간이 완료될 예정이다.



### 한글판

- 우리 춤 김말복 지음 (1만2천원)
- 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 이혜순 지음 (1만2천원)

### 영어판

- A Brief History of Korea by Shin Hyong Sik (U.S. \$ 15.00)
- Roofs and Lines by Yim Seock Jae (U.S. \$ 15.00)
- Windows and Doors by Yim Seock Jae (U.S. \$ 15.00)
- Stone, Walls and Paths by Yim Seock Jae (U.S. \$ 15.00)
- The Traditional Space by Yim Seock Jae (U.S. \$ 15.00)
- Floral Lattices, Columns and Pavilions by Yim Seock Jae (U.S. \$ 15.00)

### 말씀과 함께하는 여성

#### 장상 지음

성서신학자이자 여성신학자로서 연구에 정진해온 장상 본교 명예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여성 신학 관련 글들을 엮은 것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의 복음서, 창세기, 그리고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오랜 세월 의도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무시되어 온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이 한국 교회 여성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한국 교회의 성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만4천원)

### An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Debate in Asia

#### Brendan M. Howe 역음

국제화특성화사업단이 기획한 ‘Jang-Hee Yoo’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아시아권에서의 영어 토론에 관한 이론과 실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생 정도 수준에서 영어 소통 능력과 토론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매년 열리는 아시아 토론대회(Asian Debating Championship)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만원)

### 하나님, 예수, 말씀

#### 서용원 지음

성경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습을 돕기 위해 출간된 본교 다락방전도협회 ‘말씀’ 시리즈의 제1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눈과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체험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 책은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전도자들과 또 영적 변화와 함께 전문 사역을 준



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성경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천원)

### Gender, Culture & Society: Women's Studies in Taiwan

#### Wei-hung Lin, Hsiao-Chin Hsieh 역음

본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가 기획하는 ‘아시아 여성학 교재’ 시리즈의 제3권으로 대만의 여성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본다. 오는 6월19~23일, 본교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세계여성학대회 전까지 총 7종의 아시아 여성학 교재가 출간될 예정이다. (2만5천원)

### 어떤 푸른 이야기

#### 장 미셸 몰푸아 지음, 정선아 옮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프랑스의 대표 문학자이자 시인인 장 미셸 몰푸아의 작품이다. 구조주의에 의해 폄하되었던 ‘서정’의 개념을 복원시켜 현대 프랑스시의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몰푸아가 그의 이론적 성찰을 산문시 형식으로 풀어낸 일종의 시론으로, 그의 작품세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저작이다. (8천원)

### 늘보의 햇살맞이

#### 정기해 외 지음

본교 인문과학대학이 주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국 고교생 백일장은 21세기 한국 문학을 이끌어 갈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열린다. 이 책은 2004년도 제9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에서 입상한 시, 소설, 평론·수필 부문의 수상작들을 모아놓은 작품집이다. (8천원)

## 다시 한번 확인한 '자랑스러운 이화'

### 해외 동문 위한 제3회 Ewha Alumnae Academy



정익숙 명예이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윤후정 이사장(다섯번째)과 함께 한 해외동문들.

"미국 땅에서도 이화 사랑은 변함없지요."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그리운 모교를 찾아 모처럼의 회포를 풀었다. 대외협력처(처장 황혜진 교수)와 총동창회(회장 윤순희)가 공동주최하는 해외 거주 동문 교육프로그램 Ewha Alumnae Academy(EAA)가 5월30일~6월2일, 성황리에 치러졌다. 2001년에 시작,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EAA는 '한국문화와 여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해외 동문 25명, 선교사 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본교 정하영(국문), 강우방(미술사학), 조재

경(산업디자인) 교수 및 국립국악원의 문 현 교수의 특강, 창립 119주년 기념식, 박물관 개관식, 동창의 날 행사, 창덕궁 답사 등에 참가하며 모교와 모국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다.

5월30일에는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이 오랜 이민 생활을 보낸 참가자들을 위해 '이화의 역사' 소개 시간 및 오찬을 마련했으며, 신인령 총장은 만찬을 주최, 동문들의 해외 활동담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3박4일간 일정을 보낸 후 이미옥 동문(국문 68년졸)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매우 알차고, 모교의 눈부신 발전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며 수료생 대표로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수료식을 마친 후, 장학금으로 93만원과 미화 \$1,600을 대외협력처에 전달했으며, 15명은 ESCC기금으로 총 \$37,900을 약정했다. 참가자 중, 이화국제재단 이사인 이숙현 동문(가정 67년졸)은 지난 4월, 본교를 직접 방문해 ESCC 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한 바 있다.

#### <ESCC기금 약정 해외 동문>

이미옥(국어국문 68년졸) \$1,000, 최옥순(국어국문 70년졸) \$1,000, 박명순(영어영문 62년졸) \$1,000, 양승희(사학 73년졸) \$10,000, 김영삼(신문방송 66년졸) \$600, 최길자(화학 65년졸) \$1,000, 김주경(관현악 77년졸) \$3,000, 김미연(성악 70년졸) \$500, 김수경(작곡 75년졸) \$5,000, 이정인(법학 75년졸) \$500, 박옥희(약학 51년졸) \$1,000, 김정희(약학 54년졸) \$1,000, 김영재(약학 57년졸) \$10,000, 이숙현(가정 67년졸) 1억원, 김영재(가정 68년졸) \$300, 이영일(의류직물 72년졸) \$2,000



#### 총동창회 ESCC기금을 위한 바자

4월28~29일까지 생활환경대학 앞 광장과 학생문화관 앞에서 ESCC기금마련을 위한 총동창회 바자가 열렸다. 성인 및 아동의류, 구두, 핸드백, 각 지역 농·특산물, 기증품, 액세서리, 먹물거리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 바자에는 많은 동창 및 재학생들이 참여, 모교 발전을 위한 씨앗돈을 만들었다. 29일 오후 4시, 오숙희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모교 스승님과 사회 저명인사의 애장물품 경매에서도 많은 동창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바자 수익금 1억원과 동창회기금 2억원을 합쳐 총3억원을 ESCC 기금으로 전달했다.



### 동문 동정

#### 2005 '올해의 이화언론인'



**이옥경(신문방송 72년졸)**  
**김주하(과학교육 98년졸)**  
**박은령(국문 89년졸)**

이옥경 내일신문 편집국장, 김주하 MBC9시뉴스 앵커, 박은령 방송작가가 이화언론인클럽(회장 김혜경 KBS제3라디오 프로듀서)은 '2005 이화언론인' 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4월21일(목) 오후6시30분 경영관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옥경 동문은 일선기자 경험없이 편집국장에 발탁돼 이 슈중심의 신문 제작으로 호평 받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주하 동문은 지난 6년동안 MBC '9시뉴스데스크'를 진행해 오면서 뛰어난 뉴스감각과 탁월한 진행솜씨로 부동의 앵커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은령 동문은 KBS 미니시리즈 '두번째 프러포즈'를 통해 이혼여성의 독립과 성공을 긍정적으로 그려낸 점이 인정됐다.

이날 함께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연숙 전 회장(파라다이스 미디어아트 부사장, 신문방송 76년졸)에 이어 김혜경 KBS제3라디오 프로듀서(교육공학 78년졸)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홍라영(불문 82년 졸)**  
**조한희(과학교육 77년 졸)**

5월16일 '제 8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나란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삼성미술관 리움 수석부관장인 홍 동문은 삼성미술관 리움 설립 및 세계박물관대회 서울총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대통령 상을, 계룡산자연사박물관 부관장인 조 동문은 박물관 발전에 노력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민병주(물리 81년졸)**

5월18일, 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 연수원장으로 임명됨으로서 연구소 설립 46년만의 첫 여성관리자가 됐다. 본교와 일본 큐슈대학을 나와 일본원자력연구소와 일본이화학연구소 근무를 거친 민 동문은 91년부터 원자력 연구소 종합안전평가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해 왔다.



**구슬이(사회복지 05년졸)**

5월2일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제21회 입법고등고시에 일반행정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입법고시의 합격자는 총 25명이다.



**천양희(국문 66년졸)**  
**정끝별(국문 87년졸)**

20여년 터울의 국문과 동문인 두 동문이 나란히 시집을 발표했다. 65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한 천 동문이 '너무 많은 입' (창비)을, 명지대 국문과 교수이자 시인, 평론가로 활동중인 정 동문이 '삼천갑자 복사뿔' (민음사)을 발표해 '문학이화'의 힘을 과시했다. 천 동문은 이 시집으로 제13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 장학금 기탁 소식

### 홍성대 박사, 본교 수학과에 장학금 기탁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박사(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가 본교 수학과에 총 1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왔다. 2003년 11월 수학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5000만원을 기탁한 후, 1년 6개월 만에 50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의 '홍성대 장학금'이 조성된 것. 이는 수학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 두 명에게 매년 지원될 예정이다. 홍 이사장은 "수학과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통해 미래의 훌륭한 여성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외교학과 조정자장학금

20년 넘게 정치외교학 전공 학생들에게 지급되어 온 조정자장학금에 기금이 더해졌다. 조정자장학금은 1954~75년까지 본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1979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조정자교수의 유가족과 친지들이 조성한 추모장학금이다. 최근 들어 유가족들은 이 장학금의 지급액이 줄어 남은 장학 기금을 일시 지급하고 기금 운영을 중단하려다 5월16일 고인의 차남 박동석씨가 1500만원을 추가로 기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평소에 "기부문화가 정착됐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박씨는 어머니의 추모장학금이 앞으로도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정은(무용)씨, 성적우수 장학금 기부



2005학년도 우수 신입생으로 입학한 김정은(무용)씨가 3월31일 본인이 받은 성적우수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외협력처에 전했다. 어머니 김도은씨는 장학금을 다른 학생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딸이 이대에 입학한 것만도 기쁘게 장학금을 받아 더 기쁘고, 이렇게 받은 장학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 언론영상학부 동창회장학금과 최정윤장학금

5월18일 언론홍보영상학부 동창회에서 언론홍보영상학부동창회(회장 김미령)가 165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데 이어, 고 최정윤 동문(신문방송학 94년졸)의 어머니 이정자 동문(교육학 62년졸)이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고 최 동문은 3월5일 뉴욕으로 가던 중 교통사

고로 숨졌다. 이 동문은 딸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님들의 많은 사랑에 위안을 받았으며 "학업에 정진하던 딸아이의 큰 꿈이 후배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선열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고 최 동문처럼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데 장학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기탁자와 장학생의 만남

#### 재미 함정배 동문, 본교 장학생들 만나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함정배 동문(정치외교 72년졸)이 4월28일 본교를 방문, '함정배·이상엽



(왼쪽부터) 서미영 동문, 함정배 동문, 김보미 씨, 이목윤 씨

장학금'을 받고 있는 후배 장학생들을 만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예쁘고 똑똑한 후배들을 만나 정말 기쁘다"며 함 동문은 이미 기부한 1억원의 장학금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더 보태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부탁했다. 함정배 동문은 이화·삼성 캠퍼스센터(ESCC) 기금 300만원도 함께 기부했다.

### ES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이원옥(불어불문 68년졸) 1000만원, 김경숙(정치외교 56년졸) 300만원, 지금옥(정치외교 59년졸) 300만원, 박정재(정치외교 63년졸) 300만원, 신경희(정치외교 71년졸) 300만원, 서미영(정치외교 72년졸) 300만원, 서숙련(정치외교 72년졸) 100만원, 함정배(정치외교 72년졸) 300만원, 송외숙(정치외교 74년졸) 100만원, 이선규(정치외교 74년졸) 300만원, 김경희(정치외교 80년졸) 100만원, 윤혜숙(정치외교 84년졸) 100만원, 황유정(정치외교 85년졸) 300만원, 윤설희(정치외교 86년졸) 300만원, 장은심(정치외교 86년졸) 300만원, 이현주(신문방송 87년졸) 100만원, 김영숙(생물 74년졸) 25만원, 박숙희(생물 74년졸) 25만원, 박인숙(생물 74년졸) 100만원, 박정화(생물 74년졸) 25만원, 윤영명(생물 74년졸) 25만원, 이순우(생물 74년졸) 25만원, 이애숙(생물 74년졸) 25만원, 이종위(생물 74년졸) 25만원, 이한명(생물 74년졸) 25만원, 이현순(생물 74년졸) 25만원, 정영남(생물 74년졸) 25만원, 조애현(생물 74년졸) 100만원, 최무령(생물 74년졸) 25만원, 한인원(생물 74년졸) 25만원, 남광실(피아노 67년졸) 100만원, 차미자(피아노 67년졸) 100만원, 지순경(기악 68년졸) 300만원, 홍양자(피아노 67년졸) 100만원, 신혜순(피아노 94년졸) 200만원, 안주현(간반악기 04년졸) 100만원, 김정연(간반악기 05년졸) 300만원, 안선현(일반대학원 작곡 97년졸) 200만원, 송화승(일반대학원 작곡 04년졸) 100만원, 김애리(일반대학원 작곡 박사과정) 100만원, 남지현(일반대학원 작곡 석사과정) 100만원, 김민숙(작곡 68년졸) 100만원, 홍권옥(작곡 72년졸) 300만원, 이남림(작곡 82년졸) 300만원, 공은아(작곡 87년졸) 500만원, 원현미(작곡 88년졸) 100만원, 조경애(작곡 92년졸) 100만원, 고은미(작곡 89년졸) 300만원, 이은주(작곡 89년졸) 300만원, 정소희(작곡 89년졸) 300만원, 배재희(작곡 93년졸) 300만원, 이수현(작곡 93년졸) 500만원, 이영자(작곡 93년졸) 200만원, 류덕현(작곡 97년졸) 300만원, 김지현(작곡 98년졸) 100만원, 김애라(작곡 02년졸) 300만원, 황영옥(섬유예술 69년졸) 300만원, 김명희(무용 70년졸) 50만원, 박경애(무용 70년졸) 300만원, 박정재(무용 70년졸) 50만원, 이계순(무용 70년졸) 100만원, 허영희(무용 70년졸) 100만원, 김용주(법학 70년졸) 100만원, 안소미(법학 72년졸) 1000만원, 박은정(법학 74년졸) 500만원, 박형인(비서 76년졸) 300만원, 의학과 13기(64년졸) 500만원, 의학과 15기(66년졸) 500만원, 우영숙(의학 71년졸) 100만원, 유경희(의학 74년졸) 100만원, 강명희(의학 77년졸) 15만원, 김경현(의학 77년졸) 15만원, 김재자(의학 77년졸) 20만원, 김명희(의학 77년졸) 15만원, 김선자(의학 77년졸) 15만원, 김선희(의학 77년졸) 15만원, 김애령(의학 77년졸) 15만원, 김경진(의학 77년졸) 15만원, 김정란(의학 77년졸) 15만원, 김현숙(의학 77년졸) 15만원, 김홍희(의학 77년졸) 15만원, 김혜란(의학 77년졸) 15만원, 남형자(의학 77년졸) 15만원, 박찬금(의학 77년졸) 15만원, 변주현(의학 77년졸) 15만원, 송선희(의학 77년졸) 15만원, 송혜

섭(의학 77년졸) 15만원, 유남수(의학 77년졸) 15만원, 윤소영(의학 77년졸) 15만원, 이영애(의학 77년졸) 15만원, 이용주(의학 77년졸) 15만원, 이현섭(의학 77년졸) 15만원, 이혜성(의학 77년졸) 50만원, 이혜영(의학 77년졸) 15만원, 임계원(의학 77년졸) 15만원, 임옥순(의학 77년졸) 15만원, 장혜란(의학 77년졸) 15만원, 정미경(의학 77년졸) 15만원, 정봉숙(의학 77년졸) 15만원, 주재분(의학 77년졸) 15만원, 최번숙(의학 77년졸) 15만원, 최순희(의학 77년졸) 15만원, 최희숙(의학 77년졸) 40만원, 함선애(의학 77년졸) 15만원, 권희정(의학 82년졸) 100만원, 김미영(의학 82년졸) 20만원, 김태은(의학 82년졸) 50만원, 박성희(의학 82년졸) 25만원, 양미혜(의학 82년졸) 55만원, 오덕자(의학 82년졸) 10만원, 오현주(의학 82년졸) 60만원, 이예경(의학 82년졸) 50만원, 이은미(의학 82년졸) 10만원, 차혜숙(의학 82년졸) 20만원, 간호학과 14기(72년졸) 200만원, 약대 9기(58년졸) 300만원, 약대 10기(59년졸) 300만원, 약대 11기(60년졸) 100만원, 약대 15기(63년졸) 300만원, 김순영(약학 62년졸) 300만원, 박신자(약학 65년졸) 300만원, 이정현(약학 65년졸) 300만원, 이미애(약학 79년졸) 300만원, 한숙인(의류작물 75년졸) 100만원, 박선순(의류작물 87년졸) 1000만원



이배용(사학전공, 사학 69년졸) 1000만원, 황경재(불어불문학전공) 100만원, 차남희(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 76년졸) 100만원, 권미라(간반악기전공) 100만원, 박은혜(작곡과, 작곡 87년졸) 100만원, 백의현(작곡과) 100만원, 이귀자(작곡과) 300만원, 주영자(작곡과, 작곡 67년졸) 300만원, 채현경(작곡과, 피아노 75년졸) 1000만원, 고정화(작곡과) 200만원, 배수혜(작곡과) 100만원, 서은정(작곡과, 일반대학원 음악 95년졸) 100만원, 이규봉(작곡과) 100만원, 임준희(작곡과) 500만원, 정종열(작곡과) 100만원, 조사방(작곡과, 작곡 96년졸) 100만원, 강순희(과학교육과, 과학교육 72년졸) 300만원, 우애자(과학교육과, 과학교육 81년졸) 300만원, 정영란(과학교육과, 과학교육 79년졸) 300만원, 홍순태(과학교육과) 50만원, 김선옥(법학과, 법학 75년졸) 1000만원, 김진호(경영학전공) 80만원, 황혜진(비서학전공, 비서 79년졸) 1000만원, 박혜영(의학과, 의학 82년졸) 10만원, 백승연(의학과, 의학 82년졸) 10만원, 서정원(의학과, 의학 82년졸) 10만원, 이미애(의학과, 의학 82년졸) 10만원, 정락경(의학과, 의학 82년졸) 10만원, 김신혜(통역번역대학원교학부, 신문방송 71년졸) 200만원, 백승옥(사범대학 행정실, 영어영문 70년졸) 100만원, 이은규(교무과, 교육 81년졸) 100만원, 유경희(중앙도서관, 문헌정보 76년졸) 300만원, 하인숙(중앙도서관, 문헌정보 73년졸) 100만원, 현영애(중앙도서관, 문헌정보 77년졸) 300만원, 이현혜(총장비서실, 법학 80년졸) 300만원, 이한나(교육실, 기독교 90년졸) 100만원



최영은(여성최고지도자과정 8기) 5000만원, 박명주(여성최고지도자과정 5기) 300만원, 김상준(학부형) 200만원, 미진광 100만원

환자 중심 진료, 꾸준한 시설 투자로 A등급 받아

## 목동병원, 의료기관 평가 상위 10대 우수병원 선정

4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 결과, 목동병원이 상위 10대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다.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병동,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약제 등 18개 조사 항목으로 4개월간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목동병원은 A등급(우수·충족률 90이상)을 받음으로써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및 꾸준한 시설투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그간 목동병원은 각종 암진단에 탁월한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도입, 국내 최초 전신 촬영 MRI 도입, 초고속 선도망(KOREN)으로 국내외 병원간 원격진료 및 강의시스템 구축, 무인수납시스템 전면 가동 등 최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투자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동대문병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 '인공관절센터' '소화기병센터' 신설로 특화 전략



올해로 개원 60주년을 맞은 동대문병원이 4월16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사진)을 가졌다. 1945년 '이화'의 이름으로 개원한 동대문병원은 초대 이상옥 병원장에서부터 현 연규월 16대 병원장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교육, 최상의 연구, 최선의 진료를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중

합건강검진센터 재개원, '인공관절센터' '소화기병센터' 설립 등 숨겨진 변신을 거듭해 왔다.

이날 연규월 원장은 "이제 60주년을 지나 10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제2의 도약을 이루자"며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서현숙 목동병원장, 한운섭 의과대학장, 변영순 간호과학대학장, 지현숙 의과대학동창회장 과 내외빈들이 참석했으며, 모범직원, 모범부서,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증정식이 있었다.

기념식 전날인 15일에는 병원로비에서 유니스트링 앙상블(문종석 지휘)이 개원 기념식 전야음악회를 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목동병원

### 어린이날 맞아 풍성한 이벤트 펼쳐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별 공연 및 행사(사진)를 가졌다. 5월4일 오후 소아과 외래 병동에 삐에로가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각종 풍선을 나눠주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주니어오케스트라 팀이 어린이를 위한 특별 공연, 마술쇼와 게임 시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어린이 환자들을 기쁘게 했다.

### 동정

####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서구 명예구청장 위촉



윤건일 교수

4월부터 명예구청장으로서 강서구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듣고 구청장에게 조언을 하는 명예직을 수행하고 있다.

#### 비뇨기와 권성원 교수 국민훈장 동백장 서훈



권성원 교수

4월7일 제33회 보건의 날 및 제57회 세계 보건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권 교수는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으로 소외된 지방에서 무료검진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정형외과 김영후 교수 대한의사협회 발명품상 수상



김영후 교수

5월13일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 '한국의과학 신기술 개발 및 발명품 선정'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새제품'으로 발명품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의 발명품은 고관절 관련 질병의 재수술 빈도를 현격히 감소시켜 국내외 환자의 복지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신경과 최병욱 교수



최병욱 교수

4월8일 미국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서 '올해의 인물 (Man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ESCC건립기금 모금 소식

### ESCC 기탁자 인터뷰

#### 조성환 전 본교 교수 1000만원 약정

조성환 교수(체육학과 정년퇴임교수)는 (지난 1월) 이화·삼성 캠퍼스센터(ESCC)기금으로 1000만원을 약정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또 졸업생으로서, 이화에 봉직했던 교수로서 의당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이화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조 교수는 재직시절에도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 구내 안경점 박경근 사장 5천만원 약정



언제나 환한 웃음의 구내 안경점 박경근 사장이 4월12일(화) 대외협력처를 방문,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기금으로 총 5000만원을 약정했다. “이화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밝힌 박 사장은 올해부터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한 이화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박 사장은 2003년에도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 이화국제재단에서 보내온 기금

미국에 있는 이화국제재단에서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간호관건축기금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다.

### 장학금

Helen Kim Memorial Scholarship \$15,000, Harriet P. Morris Memorial Scholarship \$10,000, Myung Soon Woo Chung Scholarship \$10,000, San Francisco Alumnae Scholarship \$10,000, Henrietta Gibson Ledden Scholarship \$7,500, P. William Lee Scholarship \$7,500, Sang Yeon Kim Lee Fund \$7,000, Chang Hyun Shin Geer Scholarship \$5,000, Florence M. Trull Scholarship \$5,000, Kathryn B. Sears Scholarship \$5,000, Malye Yoon Scholarship \$5,000, Marion Conrow Memorial Scholarship \$5,000, Mark Gaston Scholarship \$5,000, Elizabeth S. Mitchell Scholarship \$2,500, Gloria Hahn (aka Kim Ronyoung) Memorial Scholarship \$2,500, Myrta Stever Scholarship \$2,500, Sallie E. McCreless Memorial Scholarship \$2,500, Susan Ruby Lamb Memorial Scholarship \$2,500, Shin Hyung Kim Memorial Scholarship \$2,000

###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박화재(간호 66년졸) \$2,000, 심재욱(간호 71년졸) \$4,000, 이명숙(간호 71년졸) \$360, 김순배(간호 73년졸) \$500, 김명순(간호 73년졸) \$10,000, 김희수(간호 73년졸) \$500, 남진우(간호 73년졸) \$320, 민영숙(간호 73년졸) \$500, 박정순(간호 73년졸) \$500, 백영숙(간호 73년졸) \$320, 이경은(간호 73년졸) \$500, 이연재(간호 73년졸) \$500, 조명희(간호 73년졸) \$320, 최영희(간호 73년졸) \$500, 한명남(간호 73년졸) \$500, 홍은희(간호 73년졸)

\$500, 홍정순(간호 73년졸) \$500, 김용인(간호 75년졸) \$500

### 조형대 특별프로젝트기금 모금 현황

김명환 3000만원, 곽우식 2000만원, 박은숙 2000만원, 신호균 2000만원, 안정삼 2000만원, 조문순 2000만원, 김만수 1000만원, 진길자 1000만원, 조전희 500만원, 이달용 100만원, 조흥건 100만원

## 발전기금 기탁 현황

### 사범대학교육관건축기금 모금 현황

교육학과12기(61년졸) 100만원, 김자영(교육 82년졸) 100만원, 노재정(교육 82년졸) 100만원, 황은순(교육공학 67년) 50만원, 교육공학과6기(72년졸) 300만원, 송준만(특수교육과) 100만원, 심현섭(특수교육과) 100만원, 최경식(특수교육 75년졸) 100만원, 김광연(특수교육 83년졸) 10만원, 박기영(특수교육 83년졸) 300만원, 원성욱(특수교육 83년졸) 300만원, 장형원(특수교육 83년졸) 10만원, 정연주(특수교육 83년졸) 10만원, 정충연(특수교육 83년졸) 10만원, 김주연(특수교육 85년졸) 500만원, 박순희(특수교육 86년졸) 100만원, 류숙렬(특수교육 88년졸) 100만원, 김수연(특수교육 92년졸) 100만원, 영어교육동창회(68년졸) 200만원, 이숙임(사회생활 59년졸) 200만원, 이사동(사회생활 61년졸) 100만원, 정길재(사회생활 65년졸) 100만원, 하인숙(사회생활 65년졸) 100만원, 함인숙(사회생활 69년졸) 100만원, 조봉리(사회생활 72년졸) 100만원, 심세욱(사회생활 81년졸) 20만원, 이경숙(사회생활 81년졸) 10만원, 김유진(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김지현(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류은정(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박미영(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윤지영(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이영희(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정수정(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조태영(사회생활 95년졸) 100만원, 최은정(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최인숙(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최종숙(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허국래(사회생활 95년졸) 20만원, 황현경(사회생활 95년졸) 10만원, 허명(과학교육과) 300만원, 우애자(과학교육 81년졸) 200만원, 신경희(수학교육 77년졸) 200만원, 이영희(수학교육 78년졸) 200만원, 김미정(수학교육 91년졸) 100만원, 오정현(수학교육 91년졸) 100만원, 윤미영(수학과 93년졸) 100만원, 서혜정(수

학교육 97년졸) 50만원, 이소래(수학교육 01년졸) 100만원, 구기정(보건교육 74년졸) 50만원, 이명순(보건교육 73년졸) 50만원, 이주순(보건교육 73년졸) 100만원, 김동희(보건교육 74년졸) 100만원, 오지미(보건교육 74년졸) 50만원, 조성희(보건교육 74년졸) 100만원, 박경옥(보건교육 94년졸) 500만원, 황혜진(생물과학 93년졸) 100만원

### 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LA의대동창회 \$1,100, 김수인 500만원, 문일환 500만원, 임원정 700만원, 은효원 500만원, 조수진 500만원

###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임은주(임상보건과학대학원 04년졸) 200만원, 이영자(간호 65년졸) \$300, 신영옥(간호 72년졸) 100만원, 장은희(간호 72년졸) 100만원, 정우영(간호 78년졸) 100만원, 양숙자(간호학과, 간호 81년졸) 500만원, 아옥련(간호 81년졸) 100만원, 홍성희(간호 94년졸) 200만원

### 기타 발전기금 모금 현황

임소정(정치외교 3학년) 50만원, 송경희(이영회 25기) 300만원, (주)크레디아 4000만원, 삼성생명보험(주) 3000만원, 패션디자인연구소 820만원, 윤미용 100만원

## 기금 납부 재개한 손형심 동문

손형심 동문(의학 65년졸, 우리병원 원장)이 잠시 중단했던 기금 납부를 재개했다. 지난 1996년 의과학연구소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하고 월 135만원씩 분할 납부를 하고 있었으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 1997년 3월 이후로 납입을 중단했던 것. “모교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항상 남아있었다”는 손 동문은 2005년 2월부터 기부금을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 기타 장학금 모금 소식

박경옥(보건교육과, 보건교육 94년졸) 300만원, 장지윤(영어영문 63년졸) \$1000, 이화민주동우회 200만원, 유종근 150만원, 아현감리교회 100만원, 자영메디칼 100만원, 구학서 30만원, 최영상 30만원

## ‘이화인닷넷’ 새단장 개편 소식



www.ewhain.net

2002년 5월 오픈되어 약 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화인닷넷(www.ewhain.net)이 지난 4월11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했다.

### ◆ 로그인 체계 통합

이화인닷넷과 이화포탈정보시스템은 모두 동일한 ID(학번 또는 교번)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게 된다. 한번 로그인을 하면 서로 호환되어 각 시스템을 중복 로그인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그동안 사

용하던 이화인닷넷 아이디는 ‘닉네임’으로 전환되어 게시판 등에서 기본 닉네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 ◆ 클럽으로 운영되는 ‘멘토링 서비스’

그동안 이용하던 1:1 게시판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여 선배는 일정 절차를 통해 멘토가 되면 자동으로 멘토링 클럽이 생성되고, 멘티는 조원들과 하는 멘토를 찾아 그 클럽에 가입하여 바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 ◆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새로 개편되는 이화인닷넷에는 <빛이 되는 이화인>, <캠퍼스 명상록> 등 곳곳에 콘텐츠 참여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 ◆ 이화인닷넷 ‘클럽’ 안내

다양한 분야로 80여개의 클럽이 개설되어 있으며 1300여명의 회원이 활동에 참여 중이다. 졸업한 이화인들의 클럽 ‘이화연가(戀歌)’는 현재 회원이 53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직장 생활의 애환, 결혼, 연애, 진로 문제 등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